아시아투데이 | http://me2.do/5Lfsorqg

포항시, 바이오·첨단신소재 8개 기업 투자유치

기사승인 [2020-08-26 17:39]

포항/아시아투데이 장경국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자유치를 순조롭게 긴행하고 있다.

포항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건립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8개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은 2024년까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3만6848㎡ 부지에 45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요 투자업종은 바이오·첨단신소재 분야다.

이번에 시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 총 8개사 중 7개사는 포항에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건립단계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포항에 재투자해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제품 양산 또는 사업 확장 단계에서 마케팅과 기업의 자금유치가 비교적 용이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은 포항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업투자 선순환 구조를 보여줘 포항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 기업 투자유치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텍에서 성장한 기업은 ㈜에이엔폴리(대표 노상철), ㈜원소프트다임(대표 이대호), ㈜바이오컴(대표 류봉열)이다. 또 포항TP에서 성장한 기업은 ㈜이너센서(대표 강문식), ㈜이브이에스(대표 이득진), ㈜휴비즈아이씨티(대표 심희택)다.

국민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성장한 기업은 ㈜아이언박스(대표 오상택)이며, ㈜화이바이오메드(대표 한세광)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다.

시는 앞으로 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타 지역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을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전략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투자유치 협약식은 큰 의미를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R&D인프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jkg@asiatoday.co.kr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